

국내「식물변종」특허출원 적어

민간참여 규제완화 시급

식물의 품종을 개량, 우수한 종자를 만드는 식물변종에 대한 국내특허출원이 거의 없어 농산물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 기술축적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WIPO(세계지적재산권기

주요국 식물변종특허 출원동향

(단위: 건)

구 분	88년	89년	90년	91년
네덜란드	1,140	1,248	1,455	1,431
독 일	1,010	1,165	1,313	1,118
미 국	377	700	690	734
일 본	579	537	571	722
한 국	1	1	-	2

구)가 발표한 식물변종특허 출원현황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출원한 식물변종특허는 지난91년 2건에 그쳤다. 이기간중 네덜란드는 1천4백31건, 독일은 1천1백18건을 출원해 우리 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도 각각 7백34건, 7백22건을 출원해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물변종특허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 경제성과 생산성이 높은 종자를 만드는 기

술에 대한 특허이다. 네덜란드 등 농업국뿐아니라 독일 일본 등 선진공업국에서도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식물변종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EC(유럽공동체)는 이분야를 전담할 독립기구로 신품종등록청을 설립하는등 각국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종자관리법 등에 의해 민간분야의 농작물보급및 연구활동이 위축돼 국내 신품종개발이 저조하다며 민간분야에서도 이에 참여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할 것이라고말했다.

차세대 여객기 개발

보잉-에어버스 합작으로

미항공기메이커 보잉은 유럽컨소시엄인 에어버스사와 공동으로 차세대 여객기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보잉과 에어버스간의 여객기 공동개발 발표는 그동안

안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던 양사가 처음으로 협조체제 구축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잉사는 이날 전세계적으로 항공기 이용객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사가

오는 2천10년 상용화를 목표로 최대 8백여명의 승객이 탑승할수 있는 수퍼점보제트기 개발 연구에 함께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잉사는 양사가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항공기 개발 연구 분야에 국한된다고 못박고 보잉과 에어버스간의 본격적인 합작 가능성은 부인했다.

동남아공장 IC생산 3배로 늘려

일, 마쓰시다 전자

마쓰시다(松下) 전자공업은 미반도체대메이커인 내셔널세미컨덕터사의 동남아시아공장에 위탁하고 있는 IC 생산량을 연말까지 배증키로

했다.

마쓰시다전자는 작년 가을세미컨덕터와 반도체 제조및 판매분야에서 제휴한 후 세미컨덕터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포르공장에 MOS(금속산화막반도체) IC 등의 조립생산을 위탁해왔다.

현재 생산량은 두 공장을 합해서 월간 1백만개인데 연내로 2백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